

노인일자리 출·퇴근 시간 조정 통해 어르신 안전 확보한다

- 4월 13일(월)부터 일부 공익형 일자리 오전 10시 이후 시작, 오후 4시 이전 종료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유류비 상승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혼잡 시간대 이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조정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70만 9천 명) 중 공공시설봉사 일부 사업단(28만 2천 명)이며 공공시설봉사 사업단은 공원·놀이터 등 야외 공공시설 관리 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4월 13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활동(09시~12시)은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고, 오후 활동(14시~17시)은 오후 4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여 혼잡 시간대인 출근시간(07시~09시)과 퇴근 시간(17시~19시)을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4-202-347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	책임자	부 장	박중재 (031-8035-7541)



□ (목적)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04년~, 노인일자리법 제1조)

○ (규모/예산) 115.2만 개 / 2조 3,851억 원('26년)

-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 → ('17) 47만 → ('24) 103만 → ('25) 109.8만 → ('26) 115.2만개
-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 → ('17) 5,231억 → ('24) 2조 264억 → ('25) 2조 1,847억 → ('26) 2조 3,851억원

□ 사업유형 및 세부 내용

유형		내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	-	1,152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년케어·보육시설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신노년세대 특화형 돌봄 인건, 환경 분야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197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민간형	창업형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살버 카페 등)	60세 이상	6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99	일선 수행기관에 15만원(자자체), 5만원(민간)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턴비 지원 (산업 인턴·전가·조선업 등)		70	기업에 최대 270만원 지원 (월40만원(3개월)·월50만원(3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자를 활용한 제3섹터 일자리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조정대상 유형 개요

구분	조정 규모	비고	
노인공익활동	노노케어	총 70.9만명 중 공공시설봉사 약 28.2만명	-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봉사		
	기타(시범사업)		